

HEREN

영롱한 약속의 정원

February, 2016

영롱한 약속의 정원

장 미셸 오토니엘의 작품을 보노라면 소리 없이 기운 찬 그림 사이로 어떤 영원이 서려 있다. 도처에 날린 음악을 채집해 형상화한 것 같은 그의 조각은 영롱하게 빛나지만 때때로 처연하다. 그러나 절대 우울한 법이 없다. 섬세한 손길로 매만져 산뜻하거나 환상적으로 은유할 뿐. 40대에 이미 파리 퐁피두 센터와 서울, 도쿄, 뉴욕을 누비며 회고전을 연 이 프랑스 작가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대표적인 유리 조각 작품은 물론 석판화 등 신작 10점을 공개하는 것. 지난해는 그에게 재료의 변형을 통해 역사와 자연의 조화, 과거와 현재의 공존 등의 주제로 작품 영역을 확장한 해였다. 이사벨라 스투어트가드너 미술관의 정원에 설치된 '바람의 장미'와 맥을 같이하는 '골드 로투스' 등 식물을 모티브로 한 조각들은 조용히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전시는 2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제갤러리.



왼쪽 JEAN-MICHEL OTHONIEL 'GOLD LOTUS', ALUMINIUM CAST, GOLD LEAVES, PAINTED STEEL, 360×230×180cm, 2015.
오른쪽 'PURPLE LOTUS', MIRRORED GLASS, STAINLESS STEEL, 2015.